

폐결핵 환자의 가족지지 우울 및 이행과의 관계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논문집 5집, pp. 103~124, 1987.

전 화 연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폐결핵 환자의 환경적 요인이 가족지지와 정신적 요인인 우울과 이행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조사연구로 환자의 이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호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지지, 우울, 이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1986년 11월 22일까지 6주동안 수집되어 총 92명 중 12부를 제외하여 80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강이 개발한 가족지지 11문항, Zung의 자가평가우울도구 20문항, 최의 결핵환자의 주관적 이행행위 측정도구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 P. S. 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mean, standard error, cronbach's alpha, t-test, ANOVA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 가설 ;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이행정도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r = .5389$, $p = .001$).

2. 제 2가설 ;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이행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r = -.4568$), $p = .001$).

3. 제 3가설 ; “가족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r = -.3989$, $p = .001$).

4. 결핵환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평균 41.725, 표준오차 1.226이며 최하 19점에서 최고 55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5. 결핵환자의 우울정도는 평균 42.337, 표준오차 2.249이며 최소 25점에서 최고 65점의 분포를 보여 정상적인 우울상태를 나타냈다.

6. 결핵환자의 이행정도는 평균 60.975, 표준오차 1.557이며 최소 31점에서 최고 88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7. 대상자가 호소한 신체적 증상은 “피로감”(70.0%), “가래”(50.0%)이며 대부분이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93.8%).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가족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교육정도($F = 2.552, p = .046$)이고,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도 주거소유($F = 3.113, p = .045$)이며, 이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주거소유($F = 3.113, p = .031$)이다.

결론적으로 결핵 환자에 있어서 가족지지, 우울, 이행과는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환자의 이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지지를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방법을 수립하고 각 환자 개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간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제 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행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간호중재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 중재방법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실험적 분석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필요하다.

부산·경남지역의 보건소간호사의 업무수행 실태 조사

부산의과대학 잡지 제27권 제2호, 1987.

황 보 선

1987년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산지역 보건소 간호사 90명, 경남지역 보건소간호사 15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간호분과학회에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보건사업 영역별 업무수행과 업무수행의 필요성 인지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간호사의 총 보건사업의 업무수행정도를 보면 부산지역은 2.53, 경남지역은 2.51이었다. 각 사업영역별로 업무수행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부산지역은 가족계획이 3.03이었고 경남지역은 사업계획이 3.11로 나왔다.

2. 보건소간호사의 총 보건사업의 업무수행의 필요성 인지도를 보면 부산지역은 3.32, 경남지역은 4.26이었다. 각 사업영역별로 업무수행의 필요성 인지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을 보면 부산지역 경남지역 모두 결핵관리로 3.76, 4.58로 나왔다.